

# 망각과 소멸을 붙잡으려는 인간의 의지

물리학적 시간, 인문학적 시간, 사회과학적 시간 다룬 책들

시간 앞에 무력한 인간은 이성과 사유로 시간을 붙잡으려 했다.

시간이라는 신비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인류의 정신적 노동은

심오한 학문과 뛰어난 문학을 낳았다. 역사상 시간에 대한

탐구자와 그들의 작업은 시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발자취를 보여준다.

“당신의 두 어깨를 짓누르고, 당신 몸을 대지를 향해 굽게 만드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끊임없이 취해야 하오. 그런데 무엇에? 포도주건, 시(詩)건, 혹은 미덕이건, 당신 마음대로. 그러나 여하튼 취하십시오.”

보들레르의 《산문시》 가운데 한 구절이다. '소멸시키는 자'의 얼굴을 한 시간을 견디는 방편으로 보들레르는 우리에게 취할 것을 권유한다. 하지만 취한다고 시간의 채찍이 인간의 운명을 비껴가지 않는다. 시간이 인간과 사물에 망각과 소멸을 각인시켜 놓았다면, 인간은 실체 없는 시간을 이성으로 포획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문학이 탄생하고 학문의 가치가 뻗어나왔다.

## 과학이 낳은 창세기

시간에 대한 탐구는 물리학적 시간, 인문학적 시간, 사회과학적 시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김동광 옮김, 까치글방)는 물리학적·우주론적 시간에 대한 '과학이 낳은 성스러운 창세기'로 불린다. 호킹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을 접목시켜 '빅뱅 이론'을 정초했다. 그에 따르면, 약 150억년 전 어떤 거대한 별이 수축을 계속해 무한대에 가까운 밀도와 중력만 가진 상태의 한 특이점에서 대폭발로 팽창, 우주가 생겨났다.

그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지 과학기자인

존 보슬로의 《시간의 지배자들》(이충호 옮김, 새길)은 호킹의 빅뱅이론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빅뱅이론에 따르면 우주가 고르게 분포돼야 하는데, 80년대 중반 우주관측 결과 우주가 울퉁불퉁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우주의 시작과 끝을 해명하려는 과학자들의 압박감과 우주의 본질을 꿰뚫는 하나의 통일된 이론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벗어던지라고 충고한다.

한편,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부터 아인슈타인·프리고진까지의 시간관을 검토한 피터 코브니·로저 하이필드의 《시간의 화살》(이남철 옮김, 범양사), 양자역학에서 초끝이론과 같은 최첨단 이론을 동원, 시간관의 변화로 인한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한 폴 데이비스의 《시간의 패러독스》(김동광 옮김, 두산동아)도 물리학적 시간관을 해명하는 책들이다.

가스통 바슐라르가 예견했듯 “시간에 대한 명상은 모든 형이상학의 전제”다. 한스 라이헨바하의 《시간과 공간의 철학》(이정우 옮김, 서광사)은 시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고전으로 손꼽힌다. 이 책은 상대성이론과 현대기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론적 쟁점을 논의한다. '타자성의 철학'을 표방한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강영안 옮김, 문예출판사)는 “시간은 주체가 홀로 외롭게 경험하는 것이 아

니라 타자와의 관계가 곧 시간”이라는 통찰을 보여준다.

화이트헤드와 베르그송의 시간이론을 비교·분석한 오영환의 《화이트헤드와 인간의 시간경험》(통나무)은 내적·질적으로 경험되는 지속의 시간과 외적·양적으로 파악되는 시간 사이의 양극성 문제를 파헤쳤다. 그밖에 순수한 감각으로 시간을 인식하는 과정과 이것의 기초인 현상학적 시간이 구성되는 시간의식의 지향성을 밝힌 후설의 《시간의식》(이종훈 옮김, 한길사), 시간에 구속받는 인간의 존재상황을 탐구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기상 옮김, 까치글방)도 시간철학의 명저 반열에 올라 있다.

## 시간측정의 역사와 사회변동

인간의 시간의식과 시간의 물리적 표상인 시계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 시간과 시계의 변천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책들은 메타-시간담론이라 할 수 있다. G.J. 휘트로의 《시간의 문화사》(이종인 옮김, 영림카디널)는 시간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간측정의 역사를 주제로 논의한다. 특히 서유럽에 기계식 시계가 도입되면서 1시간 60분이라는 시간단위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상인계급의 부상과 화폐경제의 발흥 등의 사회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데이바 소벨의 《해상시계 이야기》(최명희 옮김, 자작나무)는 영국의 무명 시계공 존 해리슨의 이야기를 박진감 있게 그렸다. 해리슨은 해상시계를 발명함으로써 18세기 유럽의 정부와 탐험가들의 골머리를 썩었던 해상경도 문제의 해결사였다. 그가 만든 시계는 영국이 바다를 제패하는 해상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한 시계공의 열정이 세계의 지도

와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을 극적으로 엮어간다.

'시간의 문명사'인 데이비드 윙엄 던컨의 《캘린더》(신동욱 옮김, 씨엔씨미디어)는 정확한 달력을 얻기 위한 인류의 투쟁이다. 크로마뇽인이 독수리 뼈에 달의 주기를 표시했을 때부터 시작해 1582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레고리력을 채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세밀화로 그려냈다. 원래 시간은 권력자의 전유물이었다는 저자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도미노총서>로 출간된 에티엔느 클랭의 《시간》(박혜영 옮김, 영림카디널)도 물리학적인 시간의 인식과정에서 출발, 철학자들의 시간관, 시간과 운명의 문제까지 조망한 철학적 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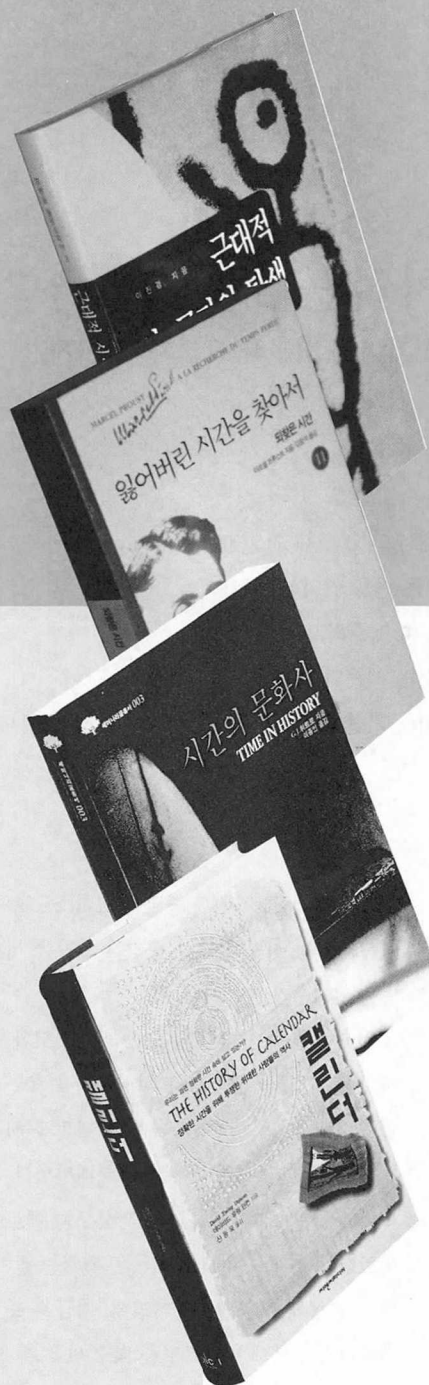
시간의 의미를 인문적으로 통찰한 책으로는 칼 하인츠 A. 가이슬러의 《시간》(박계수 옮김, 석필)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책은 현대문명의 속도중독증에 대해 느림·기다림·머무름의 미덕을 찬양한다. 저자는 빠름의 비인간성에 저항해 인본주의적 시간을 옹호한다. "느림은 창조적 사고의 전제다. 느림만이 결속과 사랑,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속도사회를 전복시키는 '혁명공약'처럼 들린다.

사회과학적 시간탐구의 성과로는 이진경의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푸른숲)이 돋보인다. 저자에 따르면, 시간은 우리의 말과 행동, 사고를 제약하고 그 흐름을 적당한 단위로 절단해 채워하는 '시간기계'다. 근대의 시간기계는 시간적 강제에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강제시키고 그들의 신체를 통해 내면에 침투함으로써 일종의 생체권력을 행사한다고 강조한다.

### 문학 속의 시간, 기억의 미학

문학에서 시간은 인간의 운명과 죽음을 관장하거나 기억과 망각을 주관하는 절대자의 모습을 띤다. 시간을 주제로 한 가장 방대한 탐구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김창석 옮김, 국일미디어)를 들 수 있다.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주인공이 사고계에서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지만 결국 인생에 절망하고 과거의 무의식적인 기억을 환기하면서 예술가로서의 길을 자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19세기부터 1차대전 직후까지 3세대에 걸쳐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간관련 도서들

500여명의 인물을 등장시킨 이 작품은 무려 518개의 단어로 한 문장을 쓰는 난해성으로도 유명하다. 이 작품을 꿰뚫고 있는 것은 '기억의 미학'이다. 사물과 감각, 심리를 찍어내는 '카메라'의 파인더 같은 주인공의 무의식을 따라서 시간이 파괴한 모든 사물과 존재를 살려낸다. 그 누구도 붙잡아본 적이 없지만 우리를 마모시키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 소설의 주인공인 셈이다.

게오르규의 《25시》는 유럽문명과 기계문명에 대한 고발이다. '25시'라는 제목은 인간성 부재의 상황과 폐허·절망의 시간을 의미한다. 게오

르규는 극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간성 회복의 길뿐이라고 역설한다. 동양적인 인간상을 상징하는 모리츠를 등장시켜 기계문명에 저항하는 동양의 정신문화에서 해방의 싹을 찾으려 한다.

미카엘 엔데의 《모모》도 시간의 위력 앞에서 찢쩍 매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환상적으로 그린다. 사람들에게 행복과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시간을 빼앗아간 회색신사들에 대해 모모, 호라 박사 등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끝자다. 엔데는 이 작품에서 '시간은 삶이고 삶은 우리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학작품 속의 시간을 분석한 책으로는 조르주 뵈레의 《인간의 시간》(김기봉 외 옮김, 서강대출판부)이 대표적이다. 이 책은 17세기 코르네이유부터 20세기 사르트르까지 프랑스 작가 20명의 시간에 대한 사유방법을 탐구한다. 뵈레는 문학적 영감의 순간은 지속이 멈추는 순간에 드러나는 존재의 경이로 본다.

그밖에 러시아 기호학자들이 문학을 비롯한 예술 텍스트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고찰한 유리 로트만 외의 《시간과 공간의 기호학》(러시아시학연구회 옮김, 열린책들), 그리스-로마의 고전, 스킨라 철학, 양자역학, 레지스탕스 기록 속에서 시간·허구·상상력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사색한 프랭크 커머드의 《종말의식과 인간적 시간—허구이론의 연구》(조초희 옮김, 문학과지성사)도 문학과 시간의 관계양상을 밝힌 책들이다.

시간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죽음과 허무의 다른 이름인 시간을 이성의 힘으로 붙잡으려는 전의로 불타오르는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 앞에 굴복해버리기도 한다. 시간 앞에 선 인간은 결국 그 양극단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탐구한 작품들이 보여주듯 시간은 삶이고 결국 삶은 시간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시간은 더 이상 외경의 대상도 아니고 도피의 대상도 아닐 것이다.

— 박천홍 기자